

I. 개 요

1. 일 시 : 2016. 7. 21. (11:45~14:30)
2. 장 소 : 포포인츠 바이 셰라톤 서울 남산
3. 발표자 : Mahyar Adibi (인하대학교 박사후 과정)
4. 참석자

김중관(동국대학교, 교수)
박현도(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장용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철복(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무)
정상률(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HK교수)
최영철(서울장신대학교, 교수)
김명희(KOTRA 중아CIS팀, 팀장)
김상진(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신동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양오석(강원대학교, 교수)
정영천(한양대학교, 교수)
이권형(KIEP, 아중동팀 연구위원)
손성현(KIEP,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장윤희(KIEP, 아중동팀 연구원)
유광호(KIEP, 아중동팀 연구원)
이민주(KIEP, 아중동팀 인턴)

5. 제 목

—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Sanctions in Iran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2016년 1월 이란 핵합의안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행일이 도래하며 대이란 제재가 해제됨.
 -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98% 감축, 원심분리기 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규 중수로 건설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적 핵시설 접근 허용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이행조건을 수행함.
 - 현재 이란 내 중수 생산과 나탄즈의 5,060개 원심분리기를 통한 우라늄 농축은 계속되고 있으며 IR-6, IR-5, IR-4 등 연구개발 목적 원심분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 동결 자산에 대한 접근,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 재가입, 이란 리알화 거래,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란은 제재 해제 이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석유수입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그 규모가 5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은행 및 금융 부문은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예금 및 대출 이자율이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등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정책이 추진되기도 함.

- 경제 제재 해제의 영향이 석유 및 가스, 보건의료, 교통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석유 생산량은 제재 이전 수준인 일일 380만 배럴로 상승하였으며 수출량도 2013년 일일 97만 배럴에서 2016년 200만 배럴로 증가함.
 - o 새로운 석유 계약 방식인 IPC(Iranian Petroleum Contract)가 현재 제정 준비 중으로 최종 내용이 곧 발표될 예정임.
 - 이란과 유럽 주요 제약업체들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기업들이 병원 건설 등 보건의료 프로젝트 투자 의사를 밝힘.
 - 유럽, 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항공기 구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과는 철도 프로젝트 개발에 합의함.
 - o 에어버스로부터의 항공기 118대 구매 계약(270억 달러)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보잉과 항공기 80대 구매 계약(250억 달러)을 협상 중임.
 - o 이란은 중국 CTC(China National Transportation Equipment & Engineering Co.)와 테헤란과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를 연결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철도 프로젝트에 합의하였으며 중국 수출보험 공사는 테헤란-콤-이스파한을 연결하는 고속철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할 예정임.
- 핵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경제적 변화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 타결에 대한 실망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경보수파들은 경제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 핵협상 찬성자 비율은 2015년 8월 75.5%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6월 62.6%로 하락함.

- o 또한 74%의 이란 국민이 1년이 지났으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이와 함께 로하니 대통령의 지지도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2017년 5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제재 해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이란 외교 노선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가운데 국제사회 내 이란의 입지도 변화함.

- 제재가 해제된 이후 20명의 외국 대통령과, 40명의 장관들이 이란을 방문함.

-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및 세계 동맹 구조에 변화를 가져옴.

- o 핵협상 타결로 이란의 지역내 영향력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 척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o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함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 균열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간의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들은 미국과 오랜 기간 동안 동맹 관계를 맺어왔으나 핵협상 타결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새로운 동맹을 찾을 필요성이 커짐.

2) 토론 및 질의응답 내용

□ (박현도 교수) 이슬람금융 은행을 재규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란 내 은행을 모두 이슬람은행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지?

- 이란 내 은행은 이슬람금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이익 분배의 원칙에 따라 문제가 없음. 그러나 대출을 받을 경우 40% 수준의 높은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 부문을 재규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신동찬 변호사)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한 것이 기술적으로 핵합의안 위반 사항은 아니나 이란 혁명수비대와 같은 보수층의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함.

- 이란 혁명수비대는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일정한 규칙을 따름.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핵합의안 위반 사항인지에 대해 판단한다면 이는 위반이 아님. 탄도미사일 자체보다 이란의 현재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임.

□ (김상진 부장) 이란 항공기 구매에 일부 유럽 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였으나 다수 유럽 은행들은 여전히 이란 진출 및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유럽 은행이 이란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다수 유럽 은행 및 기업이 송금 문제 등으로 이란 진출을 꺼리고 있음. 에어버스의 항공기 판매는 리스 형식으로 이루어짐. 이는 실질적으로 송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제재 해제 이후 남아있는 문제와 제재가 재부과될 수 있는 스냅백에 대한 우려로 기업들이 진출을 망설이는 것을 알고 있으나 사업 측면에서 이란은 유망 투자처이며 특히 항공기 부문은 좋은 사업기회라고 생각함.

□ (신동찬 변호사) 이란 핵합의안이 충분히 견고하다고 보는지? 강경보수파가 핵합의안을 위반할 가능성은 없는지?

- 이란 국민들은 제재시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음. 국민들이 강경보수파가 핵합의안을 파기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며 강경파도 그렇게 될 경우 권력을 잃을 것을 알고 있음.

□ (정영천 교수) 이란에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혁명수비대와 접촉해야 하는지?

- 이란 진출 희망기업은 이란 파트너가 필요함. 또한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에 혁명수비대가 소속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박현도 교수) 혁명수비대 관련 기업과 비혁명수비대 기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혁명수비대 관련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

-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에서 소유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함.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임. 그러나 증

권시장에서 소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며 하청 기업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파악이 힘들 것임. 제재 기간 동안 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를 장악하였는데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집권시 민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민영화된 기업을 혁명수비대가 인수하였음.

- 혁명수비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점은 미국에 지사를 두고 이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진출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최영철 교수) 이란의 경제다각화 정책이 성공적이었는지? 핵협상과 관련하여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입장은 어떠한지?

- 이란은 MENA 지역 내에서 경제다각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국가 중 하나임. 이란은 MENA 지역 최대 자동차 제조국이며 세계 4위의 타일 수출국임. 또한 핵기술과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기술을 갖추고 있음.
- 핵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최고지도자는 언제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임. 핵개발을 하는 것은 이란의 권리였으나 핵협상은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음. 그러나 제재 기간 동안의 어려운 상황이 핵협상에 이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으며 최고지도자의 승인 없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